

비디오패치워크: 오픈콜

samuso:



Artsonje Center

VIDEO PATCH WORK: Open Call

<비디오 패치워크: 오픈콜>은 2011년 11월 12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City Within the City>전의 일환으로 파트타임스위트가 기획한 사무소패치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Video Patchwork:Open Call" is held as part of Samuso Patch project by Part-time Suite taking part in <City within the City> exhibition at Artsonje Center from November 12, 2011 to January 15, 2012.

1. 송나검 Song Na Gyum

Bugs in the Box
0:3:39, 2011.

=현 도로들의 롱테이크를 빨리 감기로 아카이빙 하여 제목 그대로의 이미지를 내려고 하였습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은 정말로 차가 많기 마련인데 그 모습을 보자면 벌레들의 소굴과도 다름없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지만 벌레들의 소굴은 누가 보던지 간에 벌레들의 소굴입니다. Bugs in the Box, 우리 속의 벌레 세상을 잘 지켜봐 주세요.

2. Basak Kaptan

테라스 Terrace
0:1:15, 2008.

<테라스>는 맑은 편 버려진 빌딩 꼭대기에서 사는 가족을 매일 촬영한 비디오를 리터칭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모든 프레임은 하나씩 내보내서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렌더하고 그림을 그린 후에 비디오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 작품 <테라스>는 작가와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상 생활과의 거리에서 발생한다. 거리에 관해서는 리터칭된 프레임들이 객체, 주제, 그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에 대한 해석을 나타낸다.

3. 정두리 Doorl Jung

Into the New World
0:4:31, 2011.

이 작업은 거리에 관한 것이다. 클로즈업된 소녀들의 신체가 거리로 나와 저만큼 멀어진 몸짓이 될 때 색수열리터는 감소하고 지각은 증가한다. 후경만이 보여지는 화면을 통해 소녀의 몸짓의 디제시스는 극대화 되고, 카메라와 소녀 그리고 스크린 밖의 소녀가 다시 만난 세계는 황량한 공사장이거나 폐허 또는 CCTV의 감시적 시선일 뿐이다.

4. 안정윤 Jungyoon Ann

적과 흑 The red and the black
02:24, 2011.

해가 진 거리를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 밤 고개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붙잡아 돌리고 시선을 빼앗아 어두운 땅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저 요란스런 인간의 불빛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낮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라고 어서와 돈내고 쉬라고 빨간 불 밝히며 경쟁하는 유흥업소와 교회집사들이 빈틈없이 거리를 메운 한국의 야경을 형상화한 작품. 개별설치시 반복재생(loops)의 방식으로 보여졌던 비디오작품이다.

도시와 시도

What you are trying to
live in the City.
Cite the city within you.

The City and the Attempts

What you are trying to
live in the City.
Cite the city within you.

<비디오 패치워크: 오픈콜>은 오픈콜 메시지에 응답한 모든 영상물을 별도의 선택과정없이 모두 상영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오픈콜은 마감되었으며 총 54편의 영상물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상영시간은 약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arttimesuite.org

samuso.org

"Video Patchwork: Open Call" screens all video works submitted in response to the Open Call Message without selecting. The submission is closed on December 20, 2011, at 24:00. We have received 54 works. Estimated total screening time is approximately six hours.

5. MG Pringgtono

82:82 Never Enough
0:5:30, 2011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으로 절대 부족하다.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어떤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한가하게 보내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82:82>는 일종의 은유로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시간, 특히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없는 시간을 뜻한다. 82는 한국어로 '빨리'라고 읽히며, '빨리빨리', 라는 말은 더 서두르라는 뜻이다. 이 말은 한국의 직장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런 직장 문화 때문에 한국은 지금 같은 선진국이 되었다. 일을 '빨리빨리'한 후에 술 마시는 문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www.mgpringgtono.tumblr.com

6. 다니엘 아바드 Daniel abad

꿈의 일기: 5월 15일 Diary of Drems: May 15
0:7:0, 2011.

<꿈의 일기>는 사람이 꿈을 꾸는 동안의 명상적인 상태를 시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그 중 이 작품은 사회적인 사건을 집단적 꿈으로 바꿔 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이다. / 포맷: 8mm
www.danielabad.com

7. 송민정 Minjung Song

Patricentric
0:2:40, 2011.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합리화 할 것인가? 불확실성의 세계 안에서 나의 습성들은 나의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은 세계와 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불확실한 것들에게서 근거 찾기에 몰두하게 된다. 작업은 불확실성의 세계 위에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확신의 세계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근거를 찾아간다.

8. 홍지훈 Hong Ji Hoon

Upside Down
0:1:45, 2011.

날씨 좋은 날 작업실에 있는 와인 잔을 옥상으로 들고 올라가서 기분 좋게 시원한 탄산음료를 한잔 따라 마셨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마신 탓이었을까? 나는 지금 웬지 모르게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다.
2011년 학교를 막 졸업할 당시 한국 사회는 취업 대 혼란에 빠져있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나를 포함한 20대 대부분 대학 졸업자들을 88만원세대 또는 청년백수라고 불렀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대를 지내며... 부딪혀야 하는 일들과 금전적인 문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소망으로서 자립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불투명하게만 느껴지는 미래의 불안감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우습기까지 했던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이슈를 얼렁뚱땅 무시시키려다가 급기야 새우등까지 터져버린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해괴망측한 소문들이 나돌았고 정확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침묵...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강동으로 최루탄을 만들어 비디오편을 찍어볼까? 라는 짓궂은 상상도 해왔다. 시원하고 청량해야 할 맥주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탄산 가스가 가득 찬 알루미늄 강동에서 갑갑한 현실을 느낀다. 이렇듯 나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개인의 작은 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로 평소 즐겨 마시던 맥주와 각종 탄산음료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9. 김지혜, 김윤주, 김익라, 남지혜 Kim Heera, Kim Jihye, Kim Yunju and Nam Jihye

Untitled
00:1:42, 2011

10. 최희정 Heejeong Choi

최석순, 최희정 (At that time, my father's memory)
Choi Seoksoon, Choi Heejeong (At that time, my father's memory)
0:4:16, 2011.

어렸을 때, 퇴근을 하기 위해 신호등 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다 달려오던 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하여 몇몇의 사고 이야기들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위험한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였고, 자칫까지도 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내 습관을 만들어 냈다. 취미가 별로 없는 내가 즐겨하는 일 중의 하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잠자리 들기 전에 켜고 오늘의 영상을 Youtube 에서 다운 받아 보는 것이다. 어느 날도 똑같이 취미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accident]라는 태그가 달린 영상을 보게 되었다. 아슬아슬하게 자동차를 피한 여자가 간담을 쓸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잊혀졌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어쩌면 아버지의 모습이 저여자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상상으로만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자, 당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의지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신이 아니고서야 그 일을 해낼 자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내가 유년시절 가지고 놀다 죽이고 만 다마고치 속의 아이가 생각났다. "어쩌면 내가 다마고치 속의 아이를 키워내고 죽였던 것 처럼, 내가 접하는 영상 속의 인물의 삶을 뒤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Youtube를 통해 기억 속 상상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 다마고치에 대한 미안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내가 컴퓨터 밖의 인간이기에 느낄 수 밖에 없는 조종의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었다. 그럼과 동시에 상상을 오감으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나의 세대에 대한 감사와 안쓰러움을 경험했다.

11. 박은지 Eunji Park

Panopticon
0:4:19, 2008.

CCTV는 내면의 모든 것을 일깨우는 열병과 같다. 심장이 팔딱 팔딱 뛰는 의욕을 주기도 하고, 끔찍한 고통을 주는 큰 자극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열병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다.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닌,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힘.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 자극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건 간에, 나 또한 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몰려서지 않아야 한다.

12. 홍지훈 Hong Ji Hoon

Ghost
0:0:37, 2011.

나는 평소 알루미늄 캔에서 '톡'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하얀 거품과 탄산가스 소리에 주목해 왔다. 뚜껑을 개봉할 때의 순간적인 짜릿함과 쾌감이 단순히 유희적이거나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작은 파장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귀 기울여 본다면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주변을 새롭게 환기시키거나 그 안에서 갑갑했던 긴장이 잠시 이완되는 현상처럼 무엇인가 텅 비어있는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13. 이예인 Yein Lee

엘레베이터 Elevator
0:2:15, 2011.

아파트에 살면서 거쳐야 하는 엘레베이터 등교길의 일상을 담았다.

14. 이종수 Lee Jong Su

피지배적 소외의 연쇄형성
Knocking on Formation of Controlled Left Out
0:8:15, 2011.

도시에선 언제나 시도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도시는 항상 나아져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으로 이루어진 것에 도달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시의 지배원들은 피지배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혁신적이라고 생각되는 지배를 도시에서 시도한다. 사람이 살고자 하기에 식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식물이 먼저 이 세상에 발을 내리고 있었고 식물이 존재해야 산소가 원활히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식물이 '필요' 라기보다 '존재' 해야한다. 사람들이 식물을 필요로하는 과정에서 식물들은 불편해한다. 식물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야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식물을 위해 자신의 곁 가까운곳에 뿌리를 내릴 장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모르게 자신의 시도로 부터 '소외' 시킨다. 사람들은 식물이 스스로 움직이지않고 독립적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식물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는 '식물인간'도 보고 들을 수 있다. 식물은 모든걸 알고 있다. 다만 스스로 움직이고 눈과귀, 코, 입 이 달리고 머리에서 털이나는 과잉한 생명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5. 차재민 Jaemin Cha

광적인 이야기꾼들에 관한 연대기
The Chronicle Of Frantic Storytellers
0:14:0, 2011

시위운동이나 대규모집회는 거대도시 어디에서든 목격할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시위는 과도적 정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공간이며, 사회적 갈등과 불화를 들어내는 동시에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가진다. <광적인 이야기꾼들에 관한 연대기>는 런던에서 있었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교육비 국가 지원 삭감에 반대하는 도심시위를 기록하고 있다.

16. 정목익 muki jeong

눈물의 장발농성 Tears of the long-haired protest
0:5:54, 2011.

저희 미용실에서는 농성장 헤어스타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삭발 뿐만 아니라 장발로도 투쟁의 고취된 감정을 일깨우고 가슴 깊이 차오르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야외에서도 스타일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편안한 상태로 샴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7. 리슨투더시티 Listen to the City

서울투어 Seoul Tours
0:5:51, 2010.

listen-to-the-city.org

18. 강민숙 Minsook Kang

Everywhere
0:7:18, 2010.

부모님과 서울에서 떨어져 살던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집에 가게되는 여정을 담은 에세이 형식의 다큐영상으로 주변에 늘 있어 놓치기 쉽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카메라에 담은 작업입니다.

19. 김신영 Shinyoung Kim

소석 Little Pebble
0:5:35, 2011.

화가인 (외)할아버지의 작업과정을 담은 영상

20. 이예린 Yeeleen Lee

발발 세상에의 노크 Knock to the World under our Foot
0:3:0, 2002.

비치는, 반짝거리는 땅을 거꾸로 촬영한 곳곳의 영상과 바닥에 공을 튀겨 연출한 영상을 조합하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실제일까? 허상이 울바로된 진짜이고 지금 우리 세상이 가짜일지 모른다. 아니면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닥이 반짝이면 비로소 보이는 세상일지 모른다.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인한다.

www.yeeleenlee.com

21. 연우주 Yeonu Ju

을지로 순환선 Euljiro circle line
0:7:38, 2010.

미술작가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 압구정과 봉천동을 오가며 느낀 두 공간적 특유의 정체성간의 괴리감을 병치해 엮은 비디오로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상황들의 '쌍들이 일상적이고도 부조리하게 화합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22. 전지민 Jimin Chun

A Song for Deers
0:3:0, 2008.

인류학적인 시각과 접근으로 봤을때 보여졌던, 들려졌던것들 등등들은 간혹 우리가 알수 없는 비주얼과 사운드가 다른 종류성을 띠는 무언가에게는 아름다울수도 있는 것. 그들에게 들려주는 노래.

23. 허영지 Youngji Hur

간밤에기이한꿈을꾸었다 Nightmare
0:3:50, 2011.

유년시절, 도시는 두려움에 대상이었다. 나와 도시는 빠르게 기억을 지워가고 있다. 지금, 폐허가 된 채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의 공간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주었다. 이 영상을 본 누군가도 잊고있었던 두려움을 되새겼으면 한다.

24. 이진원 Jinwon Lee

Columbia Flight 777
0:3:29, 2009.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화면이 뒤집어진채 영상은 전개가 된다. 염세주의적 태도와 실제 현상을 받아들이는 관점의 역전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25. 이성욱 Sunguk Lee

밤꽃개 Night Flowerdog
0:13:34, 2009.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도시 산책자들을 위한

26. 강수연 Sooyeon Gang

기니뽀뽀 Guineabbooboo
0:12:6, 2011.

기니뽀뽀의 내용은 한 소녀가 기니피그를 데려다 키우지만 기니피그는 죽고 기니피그를 잊지 못한 소녀가 기니피그를 다시 찾아가지만 기니피그는 좀비가 되어 소녀를 공격한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인터미션



2012년 우리 길을 찾아올 <휴일휴업>의 <구루브구루마>를 함께해요.

Intermission

27. Alex Martinis Roe

Cut
0:0:18, 2009.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작가 Alex Martinis Roe의 최근 영상작품 "Cut"과 "Blätter"에서 책은 신체의 은유로 등장한다. 이 작품들은 이 작가의 퍼포먼스, 비디오, 설치를 통한 신체에 대한 탐구를 이어간다. 흑백에 가깝게 촬영되었으며, 디테일이 절묘하게 절제된 두 작품은, 분할하려 하거나 안정된 상태를 파괴하려는 외부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된 신체의 단순한 재현물을 보여준다. "Cut"에서는 책등이 작가의 손에 의해 정확하게 홀로 뜨개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 행동은 능숙한 솜씨로 깔끔하게 실행되었지만, 함축되어 있는 잔인함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Blätter"("책장"으로도 "잎"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에도 책등이 뜨개진 책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책의 페이지가 제자리에서 뜯겨나가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 풀려오는 태풍, 풍경, 앰블런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배경음은 도시적인 배경을 암시하며, 극적이며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다. Martinis Roe는 "Blätter"에 대해, "책을 신체라고 하면, "Blätter"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경계를 지닌 신체로서,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규범적인 생각에 저항한다고 말한다. "Cut"과 "Blätter"는 신체 혹은 텍스트의 기반이 되는 구조가 파괴되어, 하나의 독립된 총체로 더 이상 가능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질문한다. / 글: Andrea Bell

28. 장혜진, 박재용 Hyejin Jang and Jaeyong Park (흩어지는 전술 HIT and RUN)

사건의 연속 Spiral of Events
0:4:0, 2011.

2011년, 서울 시내 곳곳의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흩어지는 전술 HIT and RUN"이 진행되었다. 2011년이라는 상황에서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도시 공간에서 가능한 현대미술의 다양한 시도를 시험해보았던 이 프로젝트에서,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는 <사건의 연속>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사건의 연속>은 6월 말에서 7월 초 서울 시내의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전시(?)되었다. 이 작업은 아쉽게도 7월 7일에 청계광장을 지나던 중 작품이 부러지면서 중단되었다. 이 영상은 <사건의 연속>의 이동 경로의 일부를 기록한 것이다.
www.hit-run-seoul.org

29. 백재중 Beck Jea Jung

한밭아니 한밭 Hanbat is not Hanbat
0:12:37, 2011.

내친구 한밭의 한밭 아닌 한밭의 아마추어 증폭기 의 하루

30. 최승희 Seunghee Choi

신촌사람들 Sinchon-ers
0:14:26, 2011.

신촌의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촌에서 산다는것은 어떤 의미인지 촬영했습니다.



31. 서울똥고비엔날레 SeoulAssholeBiennale

(곧 받으러) 갑니다 Going (to get 1+1)
0:5:0, 2011

*본 '곧 받으러'갑니다는 서울똥고비엔날레의 멤버인 고구미(김화섭)가 군산 새만금을 방문하면서 부터 시작된 작업이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 8월 31일 고구미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함평까지 가던 길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줄 알고 방문한 고구미는 공사가 덜 끝났다는 사실에 그만 발을 돌려 돌아와야만 했는데, 마침 그 곳에서 한 편의점들이 가게 된다. 고구미는 그 편의점에서 프로모션 행사 중인 물(슈어 1+1)을 구입하게 되는데, 때마침 재고가 없어서 하나만 받고 직원이 나중에 오면 +1을 주겠다고 영수증에 미지급이라는 명시를 해주었다. 2011년 8월 30일 만 2년이 되던 날, 고구미와 함께 서울똥고비엔날레 멤버들(총4명)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군산행 막차를 타고 +1을 받으러 갔다. 31일 새벽, 군산에 도착하여 새만금 방조제로 이동,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영수증을 내밀고 +1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난입과 같은 방문에 당황한 편의점 사장님은 마음에 드는 물을 가져가라고 했고, 우리가 찾던 슈어가 없어 '평창수'를 대신 받아오게 되었다.

후담: 우리는 700원의 물 한병을 받기 위해 2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 물의 가치를 측정해 보고자 개념옥션을 열게 되었다. 12월 18일 <더럽게 개념적인 밤>에서 서울똥고비엔날레의 작품 2점, 김범준, 변상환, 심상미, 장근희 작가의 개념적인 작품들을 경매에 올렸다. 출품작품은 '평창수 1병'과 '당시의 영수증'. 경매 진행 단위는 생수병 1병씩(700원) 상한가로 진행하여 낙찰 가격은 생수병 15병(10,500원)이 되었다. 우린 낙찰받은 사람에게 평창수 1병과 영수증을 인도하였고, 현재 +1을 기습적으로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seoulsshole.org

32. 박슬기 Sulki Park

추석, 아이들의 놀이
On Chuseok, a group of children playing
0:3:5, 2011.

추석에 서울의 큰집에서 모인 친척관계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담은 원테이크 영상입니다. (촬영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이었는데, 놀이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촬영하였습니다. 꼬마들의 놀이, 이들이 주고받는 언어에 도시적 특성이 담겨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의 관계 맺기 방식, 소통의 문제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추석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의 영상을 찍으면서 동네를 서성이는 한 사람(자)의 상황적 맥락에서 감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3. Kazuya Takagawa

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 Narrative Of One Object
0:14:17, 2011.

*이야기들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 비디오 작업은 그 프로젝트를 기록한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지시문> - 자기 차례가 되면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 이야기는 몸짓과 말로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물건은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물건을 이 물건에 붙인다고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 다른 분이 만든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 다른 분이 만든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웃지 말아주세요. - 다른 참가자 분들과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작업은 2011년 9월에서 12일까지 서울에서 체류하는 동안 진행했다. 금천에는 오래 전부터 제조업을 해온 공장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도 금천구에 산다. 의류, 직물, 플라스틱, 기계 부품 등을 생산한다. 현재 옷과 식품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인 상품들의 생산과 소비 속도는 너무 빨라져서, 생산이 수요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은 당연히 노동에 의해 지탱된다. 따라서 금천구 같은 곳의 산업활동은 한국 근대화 이후 서울시의 경제적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 프로젝트 초기에, 나는 서울의 중고 시장들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고속 소비의 사이클에서 버려진 물건과 쓰레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많았다. 고장난 전자제품, 군화, 중학생이 그린 유희 등이 있었다. 정말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었다. 이 작업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대상으로 사용한 물건은 TV 게임기였는데, 내가 샀을 때 콘트roller도 전원 어댑터도 없었다. 그런 주변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싼 값에 샀 수 있었다. 현재 모습을 보면, 이 물건은 애초에 이 물건을 설계한 사람이 부여한 임무(즉, "TV 게임")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빼앗긴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물체에 다른 가능성을 연결해보면 어떨까 생각했고, 예상치 못한 부록이나 이야기를 부여해서 총체적으로 재창조해 보려 했다.

http://takagawaworks.web.fc2.com/takagawaworks/HOME.html

34. 홍지훈 Hong Ji Hoon

Everything
0:8:56, 2011.

몇 일 동안 서울지역 도심을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려놓은 각종 쓰레기들을 촬영한 작업이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탄산기통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잠시 사라지게 하거나 형태를 불분명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하얀 거품이 사라진 뒤에는 그것들의 존재감이 더욱 선명해졌다.

35. 박미라 Mira Park

21세기 유목민을 위한 집
The House for 21st Century Nomad
0:3:18, 2011.

태어 날 때부터 보온과 기본적인 기능을 지닌 집을 등에 달고 태어나는 달팽이. 본래의 집의 기능과 달리 부의 축적과 재산의 기능으로 변질되어 버린 인간의 집. 집을 갖기 위해 죽도록 노동하고 일생을 일개미가 되어 즐기지 못하는 인간들이 측은하다. 그래서 본래 집이 가졌던 최소한의 기능(보온과 보호)을 하는 집을 만들어 보려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집도 소유하지 못한 도시의 유목민 노숙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이동과 유목의 개념을 가진 집을 생각했다. 집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행운의 달팽이처럼...

36. 이다슬 Daseul Lee

I Know, Yellow boy project
0:10:6, 2011.
Ingolf Wunder-01- Chopin _ Piano Sonata No.3 In B Minor Op.58 - I. Allegro Maestoso

위의 작품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I know' 시리즈 안에 'Yellow boy project'로 폐광된 석탄 광산에서 유출되는 녹물속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37. 조상아 Sang A Jo

작업노트 Worknote
0:3:3, 2011.

스처가는 생각들을 기록한 일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두번 반복되어 나오고 그 둘의 속도가 다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것과 느리게 응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38. 이진주 Jinju Lee

윈드 워크 토크 Wind Walk Talk
0:4:35, 2011.

여기저기서 소음이 침투하는 도시의 공원에서 두 명의 사람이 그들이 이해하는 어떤 것-아름다운 것 혹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을 함께 찾아 나간다.

39. 홍석희 Seokhee Hong

Daydream Subway
0:2:25, 2011.

휴일 낮 철교를 건너는 지하철.

People have their own twisted recordings of daily moments. This personal experience was visualized with a variety of lights and colors.

40. 정승호 Seung ho Jung

황색정원 Yellow Garden
0:3:53, 2011

41. 김희진 HeeJin Kim

스무살을 부탁해 Letters to My Twenties
0:14:40, 2011.

스무살의 고민에 대해 20대부터 60대까지 물어봄으로써 각 연령대의 생각을 통해 다시 20대의 고민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42. 안단비 Danbee Ahn

하늘자전거달리기 Sky-bicycle
0:12:45, 2011.

<하늘자전거달리기프로젝트>는 어디로부터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발전과 나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여성들의 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적인 공간에서 시도되는 미를 위한 노력들의 나열을 살펴볼게 되었고 그 중에 '하늘 자전거'라는 동작에 집중하게 되었다. 누운 상태에서 허체를 들어 올려 허공에 다리를 짓는 방법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손쉽게 흔하게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제로 이런 개인적인 행동을 공적인 자리에 옮겨봄으로써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43. 술가 Sulga

Sarang Ham Mi Da Project
0:11:0, 2011.

2011년 5월 6일 프랑스의 소도시 생장에서 시작하여 820km를 걸어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32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도보 여행을 하였습니다. 길에서 경험했던 사랑과 행복한 감정, 그리고 자연 풍경 모두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기억을 잡기 위한 기록 프로젝트”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국적과 나이가 다른 총 40여명 친구들의 미소와 사랑을 한국의 친구들에게 전달합니다.
Script: ○○ 씨, 사랑합니다. / ○○ Si, SARANG HAM MI DA
www.ooosulga.com

44. 홍석희 Seokhee Hong

Good Morning
0:5:57, 2011.

This cityscape of morning rush seems so routinized.

45. 조상아 Sang A Jo

오류의 완성형 The Complete Form of Error
0:5:58, 2011.

흔히 레코더를 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와서 기록합니다. 음성에서는 두 그룹 이상의 내용이 혼재되고 그들을 구분하는건 목소리 뿐입니다. 모니터 속 타이핑된 텍스트로 보여진 내용들은 말하는 사람들의 기분, 사건 그리고 경중을 떠나서 모두가 똑같은 무게의 이야기로, 중립적으로 비춰집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놓치면서, 다시 따라가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46. 김새랑 Saerang Kim

구름이 나팔을 불면 When Clouds Blow Trumpet
0:6:24, 2011.

'구름이 나팔을 불면'이라는 주제로 드로잉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다. 카메라를 들고 도시를 산책하면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질문을 던져 보았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드로잉을 구성하였다. 바쁜 다소 삭막한 도시 생활,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47. 이준영 Joonyoung Lee

침묵의 감정 The Emotion of Silence
0:7:5, 2011.

나의 작업은 기차에서 시작되었다. 유난히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던 날.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없이 평온 해 보이던 그자연의 모습에 빠져, 어느새 나를 잊고 있었다. 그 순간, 바로 그때, 광대한 종소리와 함께 어두운 공간이 펼쳐졌고, 그곳엔 내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공명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문득 공포로 다가왔고, 이내 그 감정은 평안한 순간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느꼈고, 내가 무의식으로 흘렸을 감정의순간을 멈추어 두려 한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시작된 침묵, 일상 속에 녹아든 현상학적 조각, 그 숨기가 마르기 전에 [침묵의 감정]만이 남았다.

48. 류가영 Gayoung Ryu

밥은 먹고 다니냐
At least, are you walking around with full belly
0:15:0, 2011.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사는 현실과 그 이유에 대해 짚었습니다.

49. 나하나 Na Hana

대연이 Dae Yeon
0:15:0, 2011.

대연이를 알게 되자 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 입양 된 대연이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심대 청소년입니다. 1년 전, 대연이가 막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한국어를 제법 합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대연이는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친구도 많고 인기가 많은 학생입니다. 대연이, 대연이가 살고 있는 동네, 친구들, 대연이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네 어른들을 담아봤습니다.

50. 정경희 Kyounghee Jung

Lunch party
0:3:0, 2011.

수빈이와 함께 Lunch Party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화색빛 아파트 숲속의 아파트와 아파트의 간극 .. 그 속에서도 아이의 동심은 계속 된다.

51. 성지수, 최희범 Jisu Sung and Heebum Choi

나는 내가 지킨다 No One Can Except Me
0:5:50, 2011.

지하철 내 성추행에 관련한 어처구니없는 담론이 국가기관에 의해 반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짚어보았다.

52. 다니엘 아바드 Daniel abad

꿈의 일기: 5월 22일 Diary of Dreams: May 22
0:4:0, 2010.

"이것은 내가 어젯밤에 꾸 꿈이다. 그 꿈을 다시 꾸고 싶어서 찍었다." 꿈을 촬영하려면 먼저 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누군가 어찌어찌 꿈 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증거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서히 사라져간다는 점이 (물론 바로 잊혀지지 않는 경우이나 그럴겠지만) 꿈의 특별한 점이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꿈 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꿈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도록 촬영까지 했다면 어떨까?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만들어나고, 형태를 빚어 조직화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작품은 내면으로부터, 카메라의 반대편으로부터 촬영된 영상 연작 중 첫 작품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실제 꿈 속에서 촬영된 일련의 꿈 중 하나이다. / 포맷:슈퍼8mm
www.danielabad.com

53. 황정원 Jeongwon Hwang

Attack
0:7:3, 2011.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에서는 32곳이 트랜스포메이션되고 있다. 얼마 전 바로 주위에서 살아가던 이웃들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고 우리들의 집은 아무 애정 없이 부서진다. 개발 되었을 때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유년 시절의 기억, 감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사라짐에 대한 무관심, 곧 흙 가루로 되어 버릴 곳에 흔적을 남기는 작업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근대적 시간관념 속에서 과거는 지나간 역사로 무시하거나 흘려버리고,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부림,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 영상은 2011년 0731~0815일까지 부산 독립문화공간 AGIT 에 레지던스작가로 입주하며 그 일대 장전중에서 작업한 작업물의 사진과, 용산 23가 길 '집창촌'이라 불리웠던 곳에서 작업했던 사진과 영상을 편집한 작업물이다.

54. 조익정 Ikjung Jo

Rooftop Bear
0:8:55, 2011

물탱크 설치 작업은 집을 떠난 삶의 실험이다. 작은 방조차도 너무 비싸고, 학생의 주거 및 숙박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는 전무한 서울에서 학생 신분으로 독립된 삶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게 가족의 지원 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적당한 장소가 미대 건물 옥상의 물탱크 아래인 것은 농담 같은 현실이었고 독립적인 삶의 형태 자체의 불가능성은 좌절 그 자체였다. 주어진 환경을 떠나 결심을 한 나는 이 현실을 직면하며 초 겨울, 전기도 수도도 없는 곳에 물탱크를 지붕 삼아 혼자만의 거처를 꾸리기 시작한다. 물탱크 아래 부분의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이 정리하고, 학교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거처를 지었다.

출고 기밀 데 없는 신체적 고통이 다가오고 가진 것 없는 생활은 극도로 단순해지면서 오랫동안 주변과 불화하는 존재로서의 나와 마주하게 된다.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 밤 극심한 추위 때문에 고독한 삶의 벗으로 삼았던 대형 곰 인형의 배를 갈라 그 털을 뒤집어 쓴다. 우연히 곰의 털을 쓰게 된 나는 소용돌이 치는 내 존재의 행위를 마주치게 된다. 이웃과 비슷해지기를, 그들이 이해 할 만 한 '올 꿈은 사람' 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가 정의인 기존의 환경 속에 발화하지 못한 분노의 자이는 소리처럼 머뭇거리고 걷고 넘어지며 새벽을 맞이한다.

55. 파트타임스위트 Part-time Suite

행진댄스:리버스 March Dance: Reverse
0:7:44, 2011.

지난 여름 제작된 <행진댄스>의 촬영을 맡아준 알로하, 은정, 베이가 퍼포먼스 종료 후 플로어 위에서 같은 음악에 맞춰 즉흥 댄스를 추었다.
parttimesuite.org / hangjindance.net

<<<<<1부>>>>>

송나겸 Song Na Gyum / Bugs In The Box / 0:3:39, 2011.

Basak Kaptan / 테라스Terrace / 0:1:15, 2008.

정두리 Doori Jung / Into The New World / 0:4:31, 2011.

안정윤 Jungyoon Ann / 적과 흑 The Red And The Black / 02:24, 2011.

Mg Pringgtono / 82:82 Never Enough / 0:5:30, 2011.

Daniel Abad / 꿈의 일기: 5월 15일 Diary Of Drem: May 15 / 0:7:0, 2011.

송민정 Minjung Song / Patricentric / 0:2:40, 2011.

홍지훈 Hong Ji Hoon / Upside Down / 0:1:45, 2011.

김지혜, 김윤주, 김희라, 남지혜 Kim Heera, Kim Jihye, Kim Yunju, Nam Jihye / Untitled / 00:1:42, 2011.

최석순, 최희정 Choi Seoksoon, Choi Heejeong / At That Time, My Father S Memory / 0:4:16, 2011.
박은지 Eunji Park / Panopticon / 0:4:19, 2008.

홍지훈 Hong Ji Hoon / Ghost / 0:0:37, 2011.

이예인 Yein Lee / 엘리베이터Elevator / 0:2:15, 2011.

이중수 Lee Jong Su / 피지배적 소외의 연쇄형성Knocking On Formation Of Controlled Left Out / 0:8:15, 2011.

차재민 Jaemin Cha / 광적인 이야기꾼들에 관한 연대기The Chronicle Of Frantic Storytellers / 0:14:0, 2011.

정묵희 Muki Jeong / 눈물의 장발농성 Tears Of The Long-Haired Protest / 0:5:54, 2011.

리슨투더시티 Listen To The City / 서울투어Seoul Tours / 0:5:51, 2010.

강민숙 Minsook Kang / Everywhere / 0:7:18, 2010.

김신영 Shinyoung Kim / 소식 Little Pebble / 0:5:35, 2011.

이예린 Yeele Lee / 발밑 세상에의 노크 Knock To The World Under Our Foot / 0:3:0, 2002.

연우주 Y Eounu Ju / 올지로 순환선 Euljiro Circle Line / 0:7:38, 2010.

전지민 Jimin Chun / A Song For Deers / 0:3:0, 2008.

허영지 Youngji Huh / 간밤에기이한꿈을꾸었다 Nightmare / 0:3:50, 2011.

이진원 Jinwon Lee / Columbia Flight 777 / 0:3:29, 2009.

이성욱 Sunguk Lee / 밤꽃개 Night Flow-erdog / 0:13:34, 2009.

강수연 Sooyeon Gang / 기니부부 Guin-eabboobboo / 0:12:6, 2011.

>>>>>인터미션<<<<<<
한밤의 구루부구루마 실험가동 :
약 20-30분
>>>>>Intermission<<<<<<

<<<<<<2부>>>>>

Alex Martinis Roe / Cut / 0:0:18, 2009.

장혜진, 박재용 Hyejin Jang And Jaeyong Park (풀어지는 전술 Hit And Run) / 사건의 연속 Spiral Of Events / 0:5:0, 2011.

백재중 Beck Jea Jung/ 한밤아니 한밤 Hanbat Is Not Hanbat/ 0:12:37, 2011.

최승희 Seunghee Choi / 신촌사람들 Sinchon-Ers / 0:14:26, 2011.

서울똥고비엔날레 Seoulssholebiennale / (곧 받으려) 갑니다 Going (To Get 1+1) / 0:5:0, 2011.

박슬기 Sulki Park / 추석, 아이들의 놀이 On Chuseok, a group of children playing / 0:3:5, 2011.

Kazuya Takagawa / 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 Narrative Of One Object / 0:14:17, 2011.

홍지훈 Hong Ji Hoon / Everything / 0:8:56, 2011.

박미라 Mira Park / 21세기 유목민을 위한 집 The House For 21St Century Nomad / 0:3:18, 2011.

이다슬 Daseul Lee / I Know, Yellow Boy Project, Ingolf Wunder-01 -Chopin _ Piano Sonata No.3 In B Minor Op.58 - I. Allegro Maestoso / 0:10:6, 2011.

조상아 Sang A Jo / 작업노트 Worknote / 0:3:3, 2011.

이진주 Jinju Lee / 윈드 워크 토크 Wind Walk Talk / 0:4:35, 2011.

홍석희 Seokhee Hong / Daydream Subway / 0:2:25, 2011.

정승호 Seung Ho Jung / 황색정원 Yellow Garden/ 0:3:53, 2011.

김희진 Heejin Kim / 스무살을 부탁해 / 0:14:40, 2011.

안단비 Danbee Ahn / 하늘자전거달리기 Sky-Bicycle / 0:12:45, 2011.

솔가 Sulga / Sarang Ham Mi Da Project / 0:11:0, 2011.

홍석희 Seokhee Hong / Good Morning / 0:5:57, 2011.

조상아 Sang A Jo / 오류의 완성형 The Complete Form Of Error / 0:5:58, 2011.

김새랑 Saerang Kim / 구름이 나팔을 불면When Clouds Blow Trumpet / 0:6:24, 2011.

이준영 Joonyoung Lee / 침묵의 감정 The Emotion Of Silence / 0:7:5, 2011.

류가영 Gayoung Ryu / 밥은 먹고 다니냐 At Least, Are You Walking Around With Full Belly / 0:15:0, 2011.

나하나 Na Hana / 대연이 Dae Yeon / 0:15:0, 2011.

정경희 Kyounghee Jung / Lunch Party / 0:3:0, 2011.

성지수, 최희범 Jisu Sung And Heebum Choi / 나는 내가 지킨다 No One Can Except Me / 0:5:50, 2011.

Daniel Abad / 꿈의 일기: 5월 22일 Diary Of Drem: May 22 / 0:4:0, 2010.

황정원 Jeongwon Hwang / Attack / 0:7:3, 2011.

조익정 Ikjung Jo / Rooftop Bear / 0:8:55, 2011.

파트타임스위트 Part-Time Suite / 행진댄스:리버스 Hangjin Dance: Reverse / 0:7:44, 2011.

비디오패치워크: 오픈콜

[samuso:](http://samuso.org)



Artsonje Center

VIDEO PATCH WORK: Open Call

parttimesuite.org

samuso.org

2011년 11월 12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City Within the City전의 일환으로 파트타임스위트가 기획한 사무소 패치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Video Patchwork:Open Call" is held as part of Samuso Patch project by Part-time Suite taking part in <City within the City> exhibition at Art Sonje Center from November 12, 2011 to January 15, 2012.

도시와 시도

What you are trying to
live in the City.
Cite the city within you.

The City and the Attempts

What you are trying to
live in the City.
Cite the city within you.

<비디오 패치워크:오픈콜>은 오픈콜 메시지에 응답한 모든 영상물을 별도의 선택과정없이 모두 상영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오픈콜은 마감되었으며 총 54편의 영상물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상영시간은 약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ideo Patchwork: Open Call" screens all video works submitted in response to the Open Call Message without selecting.

The submission is closed on December 20, 2011, at 24:00. We have received 54 works. Estimated total screening time is approximately six hours.